



듀엣, 트리오...

다양한 실내악으로의 초대

광주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 하반기 다채로운 기획공연으로 시민들을 찾아가는다.

문화예술회관은 우선 기획공연 '포시즌' 다섯번째 공연이자 하반기 첫 공연으로 '실내악 시리즈'를 선보인다. 이번 실내악 시리즈는 솔로부터 5인 앙상블까지 다양한 클래식 연주자를 만나 볼 수 있는 무대다.

광주공연마루에서 진행되는 실내악 시리즈 첫 공연은 바이올리스트 김동연이다. 김동연은 오는 9월 5일 이자이, 베리오, 바흐, 힌데미트의 곡을 무반주 바이올린 프로그램으로 선보인다.

두번째 시리즈는 9월 26일 2인 음악 가극 '아파트'다. '풍자 가극'인 '아파트'는 한국인에게 삶의 척도가 돼버린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노래한다. 풍자와 해학을 통해 우리 삶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담아낸다.

'실내악 시리즈 3'은 오는 10월 17일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슈트르, 바이올리니스트 사를리에로, 첼리스트 양성원으로 구성된 '트리오 오원'이 꾸민다. 이 미 솔리스트로 유럽 무대에서 세계적인 커리어를 쌓은 세명의 연주자가 모여 아주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네번째 시리즈는 이색적인 네 연주자의 조합 '물도

광주문예회관 하반기 기획공연

김동연·트리오 오원 등 무대

동화음악극 '빨간모자와 늑대'

어린이 뮤지컬 '기분을 말해봐' 등

코라트'이다. 더블베이스 성민재, 베이스 최진배, 피아노 이한열, 클라리넷 장종선이 다양한 방향성을 선보인다. 클래식 작곡가의 곡을 재해석하고 원곡의 매력과 독특한 새로움을, 바로크 음악과 현대음악 요소의 융합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 '실내악 시리즈 5'는 오는 11월 21일 뷔에르 앙상블의 무대다. 다섯 명의 차세대 목관 솔리스트들이 코르사코프 '왕벌의 비행', 비제의 '카르멘 판타지' 등을 선보인다. 클라리넷 조성호, 플루트 유지홍, 오보에 고관수, 바순 이은호, 호른 주홍진이 다채로운 목관 음악을 들려준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 장르를 소개하는 기획공연

'포커스'도 하반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공연을 선보인다. 먼저 오는 9월 4일(오전11시·오후 3시) 광주공연마루에서 키즈 클래식 '빨간 모자와 늑대'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그림형제의 동화 '빨간 모자와 늑대'를 최원선 작곡가가 동화 음악극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정통성과 대중성을 믹스해 다양한 클래식을 선보이는 클래식한 앙상블의 연주와 스토리텔러 변신영의 맑은 목소리, 빨간 모자와 늑대 일러스트 영상을 함께 선보여 어린이들에게 음악이 주는 감성적 메시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석 1만원. 4세 이상 관람.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 공연도 선보인다. 오는 10월 6일 문예회관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어린이 뮤지컬 '기분을 말해봐'.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어린이 책 베스트셀러 해외 부문 1위에 선정된 작가이자, 2000년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을 수상한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을 무대로 옮겼다.

그림책에 담겨있는 원색 배경들을 무대에 재현해 아이들의 시각을 자극하고 신나는 음악으로 아이들의 청각을 사로잡는다. 전석무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태희 초대전 '마음의 풍경'

20일까지 화순 갤러리아트14



외유-몽 (臥遊-夢)

현대인에게 위로를 전하는 자연의 모습을 새롭게 해석한 전시회가 마련됐다.

한국화가 이태희 작가 초대전이 오는 20일까지 화순 갤러리아트 14(관장 박은지)에서 열린다. 담양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갤러리아트 14는 최근 화순 능주면으로 장소를 옮겨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

'마음의 풍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이 작가의 대표 시리즈인 '臥遊-夢(외유-몽)' 연작 등 모두 10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유유자적(悠悠自適)'의 삶을 갈망한다고 말하는 이 작가는 그 방편 중 하나로 여행을 떠나고, 그곳에서 만난 자연의 이미지를 작품에 차용해 왔다.

그는 전통 산수의 풍경을 재해석해 탁본 형식의 프로타주(Frottage) 기법을 활용, 작품을 층층이 겹쳐 쌓아 농담 효과를 극대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전시작은 정통 수묵의 감성을 살린 작품을 포함해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작품 등 다채롭다.

이 작가는 조선대 미술학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지원센터 레지던트, 대인예술시장 대인문화창작소 지음 입주작가를 지냈다.

전시를 기획한 박은지 갤러리아트14 관장은 "이태희 작가는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제작방법으로 현대적 산수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보현 8주기...마지막 시간들'

8일~10월 28일 조선대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



김진홍 사진작가가 촬영한 김보현 화백.

한국화회 1세대로 꼽히는 고(故)김보현 화백은 조선대 초대 교수를 역임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활동했다.

조선대는 그의 삶과 예술혼을 기려 대학 본관 1층에 조선대 김보현&실비아미술관을 개관해 운영중이다.

조선대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이 김보현 8주기를 맞아 그의 삶을 다룬 사진과 회화 작품을 함께 선보이는 특별전을 8일부터 10월28일까지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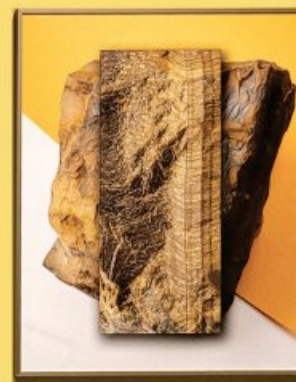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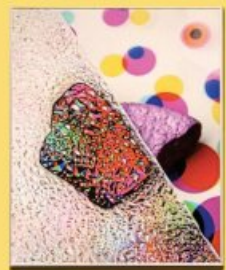
'김보현, 마지막 시간들(2010-2014)'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김보현 화백과 그의 부인 실비아올드의 마지막 시간의 기록을 담은 전시다. 전시에서는 다큐멘터리 전문 김진홍 작가가 촬영한 초상 사진과 김보현 화백의 다양한 작품을 함께 만날 수 있다. 1955년 현대미술의 메카로 불리는 뉴욕으로 떠나 디아스포라로서의 자유를 향한 삶의 모습을 작품 세계에 담아온 김보현은 60여 년 동안 뉴욕에 살며 자신의 화업을 일궜다.

조용식 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는 김보현 작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조명하고 디아스포라로서의 마지막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며 "한국화단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의 경계'

김규식·박남사·윤태준 초대...9월2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윤태준 작가의 작품

끝없는 확장과 실험 정신을 만나는 사진전이 열린다.

아무 것도 촬영하지 않은 슬라이드 필름을 환등기를 통해 끊임없이 보여주는 '회전하는 모노크롬', 레이어를 공중에 실로 매달아 회전시켜 그 아래 인화지에 궤적을 기록한 '전자 운동실험' 연작.

광주시립미술관 사진전시관 '사진의 경계전' (9월 25일까지)에서 만나는 작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진의 개념을 무너뜨린다. 아무래도 경계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작품들에는 좀처럼 다가가기 어렵다. 새로운 경험으로 받아들여져 열린 마음으로 한 작품 한 작품 감상할 따름이다.

이번 전시는 이정록·리일천·김지연 작가 등 사진작가 개인전과 '풍경·시', '누정' 등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어온 광주시립미술관 사진전시관이 처음으로 외부 기획자를 초청해 꾸린 전시다.

기획자로 참여한 사진비평가 박평중(중앙대 사진학과 교수)은 김규식·박남사·윤태준 3명의 작가를 초대해 사진의 외연을 확장하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다.

기획자는 각자의 방식대로 매체 실험을 통해 사진의 가능성을 탐구한 3명의 작가에 대해 "과거의 사진이 하지 않았던 것, 하지 못했던 것,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들을 과감히 사진의 경계안으로 끌어들이는 작가"라고 평했다. 그들은 낯설지만 "사진이라는 기본적인 속성은 버리지 않고 엄격한 사진 프로세스를 따른 작

업물들"을 보여준다.

윤태준 작가의 '낮고, 빠르게 소기' 시리즈는 '물'이라는 특정한 사물을 통해 '물성'의 감각을 깨닫게 해준다. 평범한 오브제를 촬영한 후 그 이미지를 3D 프린트로 불러와 임의로 선택한 배경 사진 위에 위치시키고 가상의 사물을 그 오브제에 충돌시켜 전혀 새로운 이미지를 추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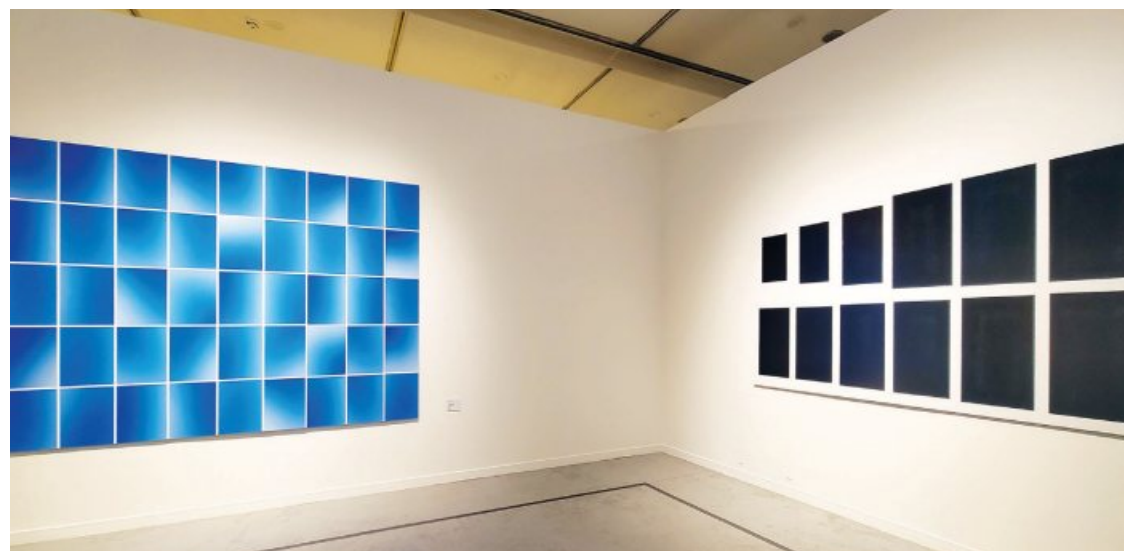
김규식 작가는 "재현하지 않고도 사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사물을

재현하지 않고 전자운동의 궤적이 만들어낸 선만을 보여주거나, 아무것도 찍지 않은 필름을 현상한 후 다양한 도형의 형태를 인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박남사 작가는 전 세계에서 사랑 받고 있는 '모노크롬 회화'의 '사진화(化)'에 초점을 맞춘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영상은 작가의 작업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월요일 휴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남사 작 '46개국의 하늘'

'영광으로 떠나는 해변의 낭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9일 지역문화 탐방



영광 원불교 영상선지, 법성진성,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등 영광의 문화와 역사를 엿볼 수 있는 탐방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오는 9일 아홉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일환으로 '영광으로 떠나는 해변의 낭만'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탐방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광으로 떠나는 해변의 낭만'은 김덕진(광주교육대 교수·사진) 이사가이동행해 해설을 할 예정이다.

오전 9시에 광주에서 출발해 영광 원불교 영상선지, 법성진성,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다. 오후에는 가족(歌客) 정용주와 함께하는 '해변의 낭만' 코너도 마련돼 있다.

선착순 20명으로 참가비는 1만원. 참여 희망자는 8일까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234-272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